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 결과 보고서

2021년 11월

빠띠 믹스팀X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채태준(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1. 공론장 기획

작은 공론장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이 공론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공론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 소개

사업명: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공론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과 토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을 활성화
-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주도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기획 및 운영 지원
-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시민들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장 행사인 ‘작은 공론장’을 개최
- ‘[민주주의 활동가 학교] 공론장 활동 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디지털 공론장 활동 역량강화
-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론장 녹색’ (가칭) 발간

기획 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는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론장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는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믹스팀은 ‘믹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

빠띠 믹스는 모두가 일상적으로 쉽게 숙의하는, 시민들이 주도하여 토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입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구축 배경

-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촉진되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중요한 사회변화는 소위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일과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디지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다수 플랫폼들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구축 목표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 빠띠 믹스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을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로 대안을 도출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빠띠 믹스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시민,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효능감을 느끼며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빠띠 믹스의 공론장은 시민의 제안과 공감, 숙의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및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의 내용은 저절로 축적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빠띠 믹스 공론장 프로세스

빠띠 믹스 공론장 프로세스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 공론장 기획의 취지

- 작은공론장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며 한 번쯤 품어 보았을 질문들에 함께 답해보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보는 자리입니다. 각자가 생각해진 ‘사회적경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실시간 공론장 개요

- 행사명: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
- 일시: 2021.09.03(금) 19:30~22:00
- 장소: 화상회의(줌), 빠띠 믹스
- 주최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X 빠띠

- 후원: OSF

2. 일상의 공론장 빠띠 믹스 사전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작은 공론장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를 개최하기에 앞서 빠띠 믹스에 세 가지 투표 콘텐츠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투표 결과, 그리고 댓글 의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표1. “사회적경제에 들어왔을 때의 기대, 있었나요?”

투표 결과

참여자 29명

- “나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다” 83% (24표)
-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대가 없었다” 3% (1표)
- 기타14% (4표)

토의 내용

“사회를 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지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좀 더 다채로운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 내 일의 이유와 가치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더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슬프게도 1년 안에 이런 기대는 와사삭 부서지기도 했지만요 ㅠㅠ 그래도 다들 시작할 때는 어떤 기대,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나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나니 이런 것이 특권이더라고요.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기업의 활동 지원,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의 투자가 좋았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면 협동조합 공화국이 올거라 꿈꿨습니다. 이제는 꿈도 깨졌고 그런 세상이 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에 기울어진 경기장이라 표현되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경제를 위한 인간(사회)가 아니라, 인간(사회)를 위한 경제로! 이렇게 하며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의 장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사회적경제였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모델을 기대했습니다. 아니....기대는 했지만...이 정도일줄은....”

정리

- “나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다.” 83% (24표)
-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대가 없었다.” 3% (1표)
- 기타 14% (4표)

투표참여자의 80% 이상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일을 시작했으며, 기타에 응답한 14% 또한 댓글로 상술된 내용을 고려하니 사회적경제 내에서 일을 시작할 때 ‘기대’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에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며 ‘기대가 없었다’고 답한 참여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댓글 의견을 통해서는 투표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지녔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자신이 일이 ‘공동체에 보탬’이 되거나 ‘대안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사회적경제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댓글 속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 ‘평등’, ‘복지’, ‘대안’을 주요한 가치로서 추구하는 영역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할 때, 수직적인 지배관계와 문화를 지닌 일반 기업과는 다른 ‘공동소유’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기대했다고 구술한 사례 역시 있었습니다.

투표2. “나는 이럴 때 사회적경제를 떠나려 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29명

- “떠나고 싶었던적이 있었다.” 66% (19표)
- “떠나고 싶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17% (5표)
- 기타 17% (5표)

토의 내용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 가치가 되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때 (떠나고 싶어요.) 가령 조직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좋지 않아서 미션은 거창하나 나의 삶에서 가치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추구한다고 말하는 가치는 있었으나 실제 추구한다는 조직의 문화나 방법은 좋지 않았고 이 괴리가 너무 커서”

“거대한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액션들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회의감이 들어요.”

“갑질 당해보셨나요? 저는 중간지원조직에 있을때 지역 사회적경제 협의회장에게 욕먹고, 불러다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넣는다고 협박해서 찾아가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사회적가치’라는 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일반기업 보다 더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장을 볼 때면,, 회의감이 많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사회적경제가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평범한 롤모델’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 유명한 사람들, 정치계나 정부에서 스카웃되는 스타들은 있지만 웬지 그런 사람들은 롤모델로

삼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조직,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오래 일하며 이 생태계에 기여하며 늙어가는(ㅋ) 그런 삶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더라구요.”

“사회적경제라 주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 협력, 공동체, 사람 중심이라는 원칙들이 공허한 헛소리라 느껴질때 떠나고 싶죠. 현장에서 적용되고 발현되는 모습들은 전혀 가치지향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 조직과 큰 차이가 없을때 그런 차이를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 자책할 뿐이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선배들이 없다는 생각, 내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죽겠구나라는 생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다는 생각. 서로가 보호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투표 참여자 중 60% 이상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답한 참여자는 17%에 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의 참여자가 ‘기타’로 답했는데요. 토의 댓글에 비추어 볼 때, 기타에 응답한 참여자들 또한 사회적경제를 떠나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경제 내에서 일하며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낀 경험이 있어 보입니다. 토의댓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투표에서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할 때 지녔던 기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참여자들은 주로 이 같은 기대가 무너질 때 사회적경제를 떠나고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라 느껴지지 않을때’, ‘일반 기업보다 더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장을 볼 때’ 등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의 접두어인 ‘사회’는 없고 이윤추구로서 ‘경제’만 남은 자신의 일터를 볼 때 참여자들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사회적경제 내에서 부당한 경험 역시 참여자들이 회의를 느낀 이유였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협의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때, 일반 기업보다 조직문화가 더 좋지 않았을 때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를 떠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내에서의 일 경험이 자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거나, 꾸준히 활동중인 ‘선배’나 ‘롤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 역시 사회적경제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라고 구술했습니다.

투표3.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며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투표 결과

참여자 21명

- “사회적경제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81% (17표)
- “아직 보람을 느껴본 적 없어요.” 0% (0표)
- 기타 19% (4표)

토의 내용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이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일할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나 이런걸 차치하고... 사회를 바꾸는 순간들, 과정들, 결과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가끔은 그것마저도 현타가 와서 ‘난 뭐하지?’ 하고 있을때가 있긴 하지만 ㅎㅎ”

“여러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떻게든 그 실현 방법을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이윤보다 사회적 미션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미션을 위해 일하고, 그런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할 때 저는 보람을 느껴요.”

“단순한 유형으로 기준에서 사회적경제라기보다 진정으로 본인의 가치를 사회적가치로 확장시키는 분들을 만나고 함께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프로젝트를 끝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그 기억으로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21명

- 사회적경제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81% (17표)
- 기타 19% (4표)

정리

투표 참여자 중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 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여자 중 약 80%는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타로 응답한 참여자들 중 일부 또한 순간일지라도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댓글 의견을 달아둔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댓글 의견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람의 경험은 비록 순간일지라도 사회적경제 내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상쇄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3. 미니 발제

사회적경제는 더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_ 오석조(협동조합 판)

“지역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함께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상황들을 겪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창업을 했다.”

“환경과 청년을 키워드로 사회적경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들어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비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방학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가 더 윤리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왜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서 협동조합을 하며 생존하고자 했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 협동조합은 유연하다. 조합원들의 연대가 있다면 협동조합은 할 수 있다. 서로간의 신뢰가 있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하는 일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인가? – 노진주(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

“제도적 관점에 사회적 기업을 보면 사회적경제 내의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포함된다. 소셜벤처도 최근에 포함됐다.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가치전도가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은 정의상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돈때문에 창업하기 위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셜 미션이 주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랑 주식회사중에 뭐가 나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 질문의 요지는 어떤 것이 돈이 더 되느냐는 것이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이 주도했다는 점이 이렇게 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회적 기업 인준 성공의 수, 언론 보도의 횟수, 조합원의 수 등으로 평가를 한다. 지원기관도 지원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것을 목표로 일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관이랑 하는 사업과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방식중 하나이다. 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인의 자부심_유한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정글이 돈을 더 많이 벌지라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데, 여기 계신 활동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공동체회의주의에 빠졌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남들을 위한다며, 가까이에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폭언하고 차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는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근본’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정의, 가치, 원칙 등이 있다. 고립을 넘어 응원하고 연대할 때 사회적경제는 자부심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자유로운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의 관점에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4. 소모임 토의 결과

참여자들은 빠띠 믹스에서의 토의 결과와 발제자들의 논의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소모임 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참가자를 환대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토의는 세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질문1]
 - 질문 1-1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때의 기대를 이야기 나눠봐요.
 - 질문 1-2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봐요.
- [질문 2] (문제발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 [질문 3] (대안) 자신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봐요.

질문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으려면 000이 필요해요!” 또는 “사회적경제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000이 필요해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빠띠 믹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그룹 ‘제안’게시판에 각자의 제안들을 적었습니다. 각 소모임들의 토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의 요약

소모임- 1조

- [질문 1-1]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때의 기대를 이야기 나눠봐요.
 - “일반 기업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못 참고 왔는데, 훨씬 합리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사회적경제 영역이었다.”
 - “사회에 대한 불만 비슷한 것이 있었다. 다른 방식, 변혁을 생각했다.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들어왔다.”
 - “주체적인, 인간적인 삶에 관심이 많았다. 수동적인 ‘착취’ 방식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협동조합 공동체를 발견해 방문하게 되었고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구나를 알았다.
 -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회적경제나 시민사회에 그러한 기대를 했다.”
- [질문 1-2]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봐요.
 - “이 영역이 결국은 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 이유였다. ‘지원금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지원조직이 지니는 한계점을 느끼며 퇴사했다. 급여, 정부 지원사업의 부작용, 생활수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행정체제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 “조직화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연합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 만들어놓고 고민 없이 다방면의 연합회 조직이 생겼다. 그러면서 서로가 해당 영역의 대표성을 주장하고 대화채널은 열리지 않고, 행정영역으로부터 누가 자기 채널로 좋은 기회를 따오느냐의 경쟁이 붙었다. 이런 식은 연대가 아닌 것 같았다.”

- “내가 만든 ‘기대치’에 실망했다. 실제로 들어와보니 표면적인 것과 달리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모습을 보았다.”
- “시민사회든 사회적경제든,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적자생존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 선배(리더)들은 70년대에 생성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리더’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에서 한자리 하기 위해 조직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과대포장하고 서로 뒷통수를 치고, 결국 안 좋은 스캔들에 휩싸인다.”
- “저녁있는 삶도, 만족감도 이곳에서 느낄 수 없다면 ‘자율성’, ‘나의 자아실현’이라도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고양감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찾기는 쉽지 않기에 무기력해지곤 한다.”
- “디자인 영역은 의사소통 등이 평형적이고, 의사소통이 재밌고 더 시너지가 난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공간이라서,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우세한 것 같다.”
- [질문 2] (문제발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전 배경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PR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평가가 높게 되는 사회다.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도 유튜브 등을 통한 PR을 통해 쌓게 된다. 행위패턴이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것 같다.”
 - “가진 것에 비해 쉽게 들어왔다. 그래서 처음엔 대우를 낮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 가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곳은 위장전입 등등 따윈 없는 정말, 신념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실망했다.”
 - “요즘 주식을 한다. 여기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의 삶을 나중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 “욕망에 솔직하지 못한 마음이 오히려 너무 실망이었다. 방금 말씀해주신 주식 이야기도, 나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예금으로 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턱없이 적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인간다움을 느낄까.’ (에 대해서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매순간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니까 내 부족함도 깨달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있다.)”
- [질문 3] (대안) 자신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봐요.
 - “주체적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왔다면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지만 그래도 느슨히 연대하길 바란다. 누군가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같이 대화하고 힘을 나누는 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생존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되 개인들이 자유롭게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주위의 동료들을 믿고 함께 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란다.따라서 이들이 모여 성공적인 모델과 사례가 생기면 좋겠고, 그로써 사회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는 관계같은 고차원적인 결보다는 생존의 영역이라서 자존심 등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생존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각자가 이 영역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즉 개인화되는 것을 인정하고 느슨한 관계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협업하는 방식을 확대시켜서 사회 전체로 민주주의를 퍼트릴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 일할 때도 굉장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치를 생각하면서 일을 협업할 수 있어야겠다.”

소모임- 2조

- [질문 1-1]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때의 기대를 이야기 나눠봐요.
 - “지난 달부터 모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됐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이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됐다.”
 - “대학에서 사회적경제 연구센터에서 일했다.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사회적경제 섹터로 들어오게 되어서 처음에는 기대 없이 들어왔다.”
 - “여차저차 협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지역 네트워크나 협동조합 이사장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좋았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오래 있고 싶었다.”
 - “첫 직장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하다가 협동조합 쪽으로 빠지게 되었다. 인생의 2/3를 회사에서 보내는 셈인데 돈만 벌고싶지는 않았다.”
- [질문 1-2]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봐요.
 - “조직문화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노동권에 대한 문제, 노동이나 활동이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초반에는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성토대회 하는 것 같고,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 “급여에 엄청난 실망을 했다.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센터는 없애야 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실망하곤 했다.”
 -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운영’이라고 1인 1표를 가지는데, 성장 후에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1인기업화 되어있다. 이사장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사장님의 결정이 크게 영향미쳐서, 1인 1표이지만 사실상 이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실망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이가 안좋다.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밥그릇 챙기는 모습에 회의감을 느꼈다.”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인 만큼 혁신적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후지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관에서의 실적 문제. 후진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스스로를 사회적경제 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활동가로서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존중/존경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으면 싫다 ‘일반 시장경제 쪽에서 일을 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라는 말을 듣곤한다. ‘더 희생해라, 더 가치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몰아붙이는 느낌이 든다.”
- [질문2]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 “젊은 친구들에게 만능이 되길 원한다. 한 명의 활동가가 정책가, 기획자, 연구자이길 바라는... 공부(노력)를 한다해서 만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30세대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 “다들 정량적 평가에 미친듯이 집착한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대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목표대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매출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복지가 좋아졌는지,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측정하지 않는다.”
 - “SVI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해 만들어졌고, 평균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보니, 사람마다 혁신 관련 점수를 매길 때 평가가 다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비계량지표가 있는데 그것조차 계량화해서 평가하려는 것 같다.”
 - “SVI 라는 평가지표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대부분이 정량적 지표라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 “지금 생겨나는 (일반 사기업) 스타트업 중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창업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기업은 없다. 전통적인 복지나 고용 창출 등에서 사회적 기업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 스타트업과 구분할 특징점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 “정성지표는 그 결과가 보다 천천히 드러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다루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점에 대해 공격을 많이 받는 느낌이다.”
 - “사회적경제 센터에서 세대는 바뀌고 당사자도 바뀌고 있는데, 주도하는 관이 너무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것 같다.”
 - “협동조합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파이는 적다.”

소모임- 3조

- [질문 1-1]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때의 기대를 이야기 나눠봐요.

- “일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의 이미지는 힘들고, 쉬는 날만 기다리고, 퇴근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보통의 이미지보다 진짜 일다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기대할 수 있었다.”
- “경제사회학을 공부했다. 거기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사회적 이론 등을 결합하여 활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 “산업 상의 규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왔다.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현타가 오게 되었다. 우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을 알게되고 궁금하게 되어 이 영역에 오게 되었다.”
- “제대 후에 협동조합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협동조합 영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잘 몰라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부조리함에 치여 첫 학기도 안 다니고 그만 둔 후 다른 학교로 전학갔다.”

● [질문 1-2]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봐요.

- “‘니가 현장을 알아? 기업을 알아? 뭘 알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다. 중간지원조직은 현장 취급을 안해주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하는 곳에 따라 사업비로 쥐락펴락하는 공무원이 제일 무서웠고, 협의회들이 제일 무서웠고, 이상한 민원인들이 무서웠다.”
- “헤이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분리수거 조차 안한다더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회의감이 든다.”
- “사회적기업 인터뷰를 하러 자주 다닌다. 보통 이사장님, 대표님을 인터뷰한다. 인터뷰하면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대답을 꽤 들었다. 사회적경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을 때의 우려가 크다.”
- “사회적경제판에 와서 더 상식적으로 일해보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했었다. 경력이 짧은 편이다. 한 어른이 ‘니가 뭘아냐, 어딜 가든 초반엔 입 닫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도한 자부심, 프라이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가진 과도한 자부심, 과거 운동권의 수직적인 구조가 아직도 존재하는 걸 보면서 제일 크게 실망했다.”

● [질문 2] (문제발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 “사회적경제가 정책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게 원인이지 않나 싶다. 협동조합 운영한다고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것이 문제다. 그래서 깊은 이해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문제가 된다.”
- “작은 파이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붙게되는 구조로 인해 내부적인 경쟁,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철학적 이해도 필요하다. 자치구로 내려가면 구 예산을 구의 구성원들이 나눠먹는다. 그 예산을 한 톨이라도 더 당겨오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빈번하다.”

-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이 많이 된다. 무분별하게 많은 지원금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보고 조금만 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 “관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부처별로 나눠져서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육성계획을 낼 때 부처별로 내는데, 분야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및 육성을 할 때 제대로 힘이 실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지원금을 잘 사용하면 좋을텐데, 뜻이 없더라도 지원 때문에 왔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안타깝다. 사회적경제를 핑계로 혜택받고 싶어만 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생력을 못갖춘 영역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싶다.”
- [질문 3] (대안) 자신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봐요
 -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 매력을 느꼈다. 장애인에 관한 단체에 있으며 멋진 사람들을 봤다. 힘든 환경일지라도 멋진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보람찼다.”
 - “시대가 변하면서 감수성도 변한다. 예전엔 당연하게 경험했던 부조리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번 공론장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함께 모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일반적으로 취재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취재하여 올리면 그 기업에 대한 선율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사회적 영역의 긍정적인 영향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공감을 사는 순간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
 -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다들 바쁘신 만큼 이런 자리가 너무 쉽지 않고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소모임- 4조

- [질문 1-1]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때의 기대를 이야기 나눠봐요
 -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친구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일하게 됐다. 원래는 유한회사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케이스다.”
 - “혼자 잘 사는 것은 의미 없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를 갈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하고싶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한양대 밖에 코스가 없었다.”
- [질문 1-2] (경험공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봐요
 - “사람 중심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해서 (실망했다). 애초에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했으면 기대도 안 했을텐데. 민주적 지배질서가 없다는 회의감이 든다.

사회적기업에서는 민주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 수직적이고 세대간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고,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강했다.”

-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도 챙겨야 하다보니 여러가지 중첩되는 업무량 때문에.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내가 못하면 동료가 운명공동체로서 일을 맡는다.”
- [질문 2] (문제발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가 실망감을 느끼도록 한 원인이 뭘까요?
 -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 우리는 주체적으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다. 그러다보니 갈등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조직들에서 뭔가 서로 협업하고 만들어내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인간적인 부분은 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조직원들 개인개인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것 밖에는 없다. 정말 어렵다. 일도 해야 하는데. 조직, 문화도 챙기고. 돌보고 해야 하는데.”
 - “일도 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도 챙겨야 한다.”
- [질문 3] (대안) 자신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봐요 보람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변하면 좋겠나요?
 - “협동조합은 적어도 내부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없는 편이다. 1인 1표로 내규화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총회를 몇 번 했는지도 심사하더라. 또한 지역사회 기여나 가치 실현 등이 더 강조되면 어떨까.”
 - “결정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하는 방식. 일반 기업은 주체성 없는 직원으로서 상사가 결정하고 상사가 책임도 진다.”
 - “과거 경험에 협동조합에서 일할 때 무급으로 일했다. 약간의 활동비가 있으면 좋겠다.”
 - “사회적기업은 사람중심이고, 기본적인 소셜 미션을 지닌다. 물질적으로 적을 때는 정신적 가치로 좀 더 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일을 하는 시간동안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서 사회적경제에서 일한다.”

소모임 토의 정리

- [질문1] [질문 1-1]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을 할 때 지녔던 기대
 - 공동체를 위한 일
 -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동
 -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노동
 - 사회이론을 실천하는 노동
 - 민주적인 직장

-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노동
- 수평적 관계맺기
- 자아실현
 - 삶의 자아실현과 생존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노동
 - 영리만이 목적이었던 기업에서의 일경험과는 다른 노동

● **[질문1]** [질문 1-2]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면서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

- 권위적 직장문화와 수직적 관계
 - 이사장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 권위적인 선배
 - 냉소적 직장문화
 - '운동권' 문화
 - 직장문화에 관한 소통 부재
- 성과중심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 '실적'을 메우기 위해 노동자 개인의 일상 희생
 - 업무로서 '수평적조직문화'가 부여하는 과중함
 - 과로로 '사람'의 부재를 메워야하는 노동조건
 -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과한 경쟁구도
- 상징적 또는 물질적 보상체계의 부재
 -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이 어려운 구조
 - 적은 급여
 - 표리부동한 상사/선배로부터의 회의감
 - '관'도 '현장'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경험

● **[질문2]** 실망감을 안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 지원사업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
 - 관 주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 지원사업 내에서 '사회적성격'에 대한 유명무실한 정의
 - 정부부처별로 서로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사회적경제
 - 정부 지원사업 의존성으로 인한 자생력 부재
 - 지원사업 두고 경쟁구도로만 관계맺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 조직문화에 대한 실질적 노력 부재
 - 갈등을 다루는 방법의 부재
 - 서로다른 세대 구성원의 활동 목적과 동력에 대한 이해 부재
 - 서로의 생존 및 욕망에 대한 무관심함
- 암묵적으로 장려되는 각자도생
 - 공론장의 부재로 조직원 개인 단위로 전개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
 - 정책/기획/연구 등 무한의 자기계발을 통한 유능함과 생존 장려
- 평가지표의 문제
 - 정량적 평가지표 중심
 - 정성적 지표의 '정량화'
 - 사회적기업을 통한 '빠르고 신속한 효과'의 기대

● **[질문3]**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 ‘사회적경제’일경험에 관한 공론장 구성
 - 부조리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자리
 - 함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
- 노동경험의 ‘사회적효능’에 대한 연속적인 체감
 -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감각을 주는 일
 - 조직이 ‘공동체’로서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
 - 동료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는 사회적경제
 - 활동 지속하며 이후 삶의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모델’과 선례 발굴
- 느슨한 연대
 - 개인화와 개인적 욕망을 인정하는 연대
 - 사회적경제 내에서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확대
 - 개인의 ‘성취감’과 ‘성장’을 독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

5. 시민 제안

참여자들은 소모임 토의를 진행한 후, 서로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빠띠 믹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그룹 ‘제안’ 게시판에 각자의 제안들을 올렸습니다.

[1] 사회적경제에는 청년들의 공론장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청년의 고유한 권한은 기성세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청년들의 공론장

[2] 사람존중경제로서의 면모, 사람존중의 기업문화를 확실히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와서, 아닌 모습, 다를바없는 모습을 볼 때의 회의감이 가장 커요.
- 제안내용
 - 협동조합의 본래 의의와 취지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기능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 원칙을 통한 가치 실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지원을 활용해서 생계가능한 수준의 임금 확보 해주고,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 행위하는 자부심과 사람존중의 기업문화 속에서 노동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3] 사회적경제에는 좋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라는 말이 있어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계속 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앞으로 갈길이 많이 남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이 아닐까요?
- 제안내용
 - 비록 소속된 곳은 다르지만 언제든지 동료처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오늘의 공론장형식도 좋고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넓혀나가는 데 힘을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사회적경제에는 역량 습득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전문성 없는 활동가가 무얼할 수 있느냐는 소릴 듣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습득
- 제안내용
 - 기업을 지원한다면 경영이라는 직무적 역량, 관계성을 지원한다면 퍼실리테이팅,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삶속에 구현하고 싶다면 민주성, 연대 등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구현 등 필요 역량을 규정해볼 수 있다면 역량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좋을 것 같다.

[5] 사회적경제에는 평등하고 존중받는 소통 장치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더욱 가치지향적 노동 환경에서는 가장 많이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 사회적경제에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에서 혼자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사회적경제는 업무도 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도 챙겨야 하죠. 그러다 보니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7] 사회적경제에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제안내용
 -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등 본질적인 것부터 문서화하거나 실험을 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사회적경제에는 자부심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굴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자고 더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일일텐데 웃으면서, 즐기면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자부심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연대하고 함께 해요

[9] 사회적경제에는 학생운동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대학문화 등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약을 자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상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제안내용
 - 사회적경제 영역은 일상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지역 사회를 바꾸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를 찾아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접하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고민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사회적경제에는 존경할만한 멘토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우리는 선배들을 보고 배워요. 근데 일하면 일할수록 실망만 늘어요. 저 선배들을 보고 배울게 있나? 저 어르신들도 처음엔 사경의 대선배라고 존경했었는데.. 알고보니 인성에 문제가? 존경할만한 어른들, 보고 배울만한 선배들 어디있나요?

[12] 사회적경제에는 끊임없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함께 고민한다면 어떨까요?!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봐요.
- 제안내용
 - 우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아가요. 완전한 해결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회적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의 동심원을 키워봐요.

[13] 사회적경제에는 정부발로 무분별한게 활성화된 사회적경제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제안배경
 - 사회적가치란 무엇인가,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
- 제안내용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흘러가는 지원금의 규모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대다수가 정량적 평가라고 하네요. (SVI) 사회적가치를 정량적 수치로만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관에서 만든 평가가 아닌, 민간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만드는 평가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4] 사회적경제에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경조직이 일반 기업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활동 지속성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을 임금과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를 구성원으로서 잘 관리해야하지 않을까요?
- 제안내용
 - 따라서 경제적/가치적 보상이 모두 보장 되어야 해요.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사회적가치를 더 중시하는 조직인만큼, 지속적인 교육/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적 보상은 미션일수도 있고, 사경조직의 민주적인 문화가 더 발전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활동하는 이유, 그 성과가 조직차원에서 제대로 측정되고 또 동기부여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조직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5] 사회적경제에는 청년들의 공론장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청년의 고유한 권한은 기성세대에게 변화를 요구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청년들의 공론장

[16] 사회적경제에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에서 혼자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사회적경제는 업무도 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도 챙겨야 하죠. 그러다 보니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7] 사회적경제에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해요

- 제안배경

-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제안내용

-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등 본질적인 것부터 문서화하거나 실험을 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제도의 재구성**
 - 정량 중심의 현행 평가지표를 대신할 **대안적 지표 개발**
 - 사회적경제 내의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문화**를 지표화
 - 사회적경제 속 개인의 생계를 고려한 **임금 지원정책**
- 사회적경제의 **안과 밖에 소리칠 공론장**
 - 사회적 경제의 **노동조건에 대해 말할 자리**
 -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대해 말할 자리**
 - 사회적 경제 속의 **청년들을 위한 말할자리**
- **지속가능한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
 - 주도적인 일경험과 교육을 통한 **성장의 감각 생산**
 - ‘사회를 위한 내 노동’이라는 **가치적이고 상징적인 보상의 지속적인 창출**
 - 사회적경제 내에서 **존엄한 삶의 이행과 지속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선배와 상사**
 - **활동사례의 사회적 담론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문화를 다시쓰기**
 - 직원들이 **서로의 일상과 삶에 관심을 지닐 수 있는 마중물 마련**
 -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백서 마련**

6. 나가며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 공론장은 사회적경제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일경험에 관해 나누고, 오늘날 ‘사회적경제’가 처한 문제와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어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에 처음 진입할 때 자신이 지녔던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보다 공공성과 밀접한 일을 하고 싶어서 등 참여자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의 접두어인 일의 ‘사회적’ 성격을 기대하고 장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내의 대안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는 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지도 몰라’, ‘사회적경제에서는 내 삶과 일상을 돌볼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 ‘사회적경제에서는 서로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거야’ 등은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기 전에 지녔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 중 많은 이들은 기대와는 정 반대인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보거나, 사회적경제 속 일경험의 긍정요소를 상쇄하는 부정적요소로 인해 이직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내에서 예상치 못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마주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에서 일의 ‘사회적’공헌을 찾을 수 없어 당황기도 합니다.

부당한 노동조건과 가치가 전도된 ‘사회적 경제’를 마주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내에서 성장의 감각이나 성장의 사례, 개인의 불안정성과 욕망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이 ‘우리’를 고민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나’에 관해 탐색하거나 ‘나의 삶’을 모색하는 부당하고 쓸모없는 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서로다른 기대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해, 기대가 부숴지거나 이를 채우고 넘치는 힘듦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 영역을 여전히 떠나지 않았으며, 함께 ‘보다 나은 사회적경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제도를, 사회적경제 속 개인의 노동조건을, 사회적경제의 조직문화를 다시 써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안과 밖에서 ‘만날자리’가,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참여자들은 말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목소리에는 사회적경제로부터 실망했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 내에서 자신의 삶과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일을 모색하고싶은, 지난한 고민의 결이 담겨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이어받아 사회적경제 속의 노동과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관해 논의하는 공론장은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공론장이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